

## □ 해외 단신 □

### 대만의 어문 정책

대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北京의 중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北平語이고 또 하나는 대만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臺語이다. 앞의 것이 대만의 표준어인데 그들은 이를 國語라고 부른다. 대만의 어문 정책은 물론 이 國語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이의 보급을 위하여 예전에는 상당한 무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예컨대 극장의 대표구에서 國語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를 팔지 않았거나 방송 매체에서도 國語만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國語를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國語와 臺語가 함께 쓰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은 대부분이 國語로 방송되지만 뉴스와 연속극의 경우에는 臺語 뉴스와 臺語 연속극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주민이기 때문인지 바다 낚시 예보만은 반드시 臺語로 방송된다. 그리고 어떠한 언어로 방송되는가에 관계없이 國語로 된 자막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는 어느 한 쪽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미의 전달과 國語의 보급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는 國語의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國語日報라는 중앙 일간지가 있다. 이 신문의 모든 글자 옆에는 注音符號라고 불리는 발음 부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어려운 漢字도 손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國語의 용법, 용례 등에 대한 기사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층이나 國語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아주 유용하다.

國語의 쓰기에는 세로쓰기와 가로쓰기가 모두 사용된다. 대륙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가로쓰기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대만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로쓰기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가로쓰기도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법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법을 택하지만 법원 등의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곳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방법을 택한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만은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이는 상당한 혼란과 복잡성을 띤 쓰기법인 셈이다. 그러나 대만의 國語 정책은 이러한 것을 구태여 통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전통과 관습으로 적어도 중국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대만에서는 모든 외국어가 통일되어 표기된다. 이 표기는 단순히 音譯한 것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번역한다. 소련의 수상이 있면 호루시초프를 한때 赫翁으로 표기했다가 적국의 수장에게 “빛날 령”자를 쓸 수 없다고 하여 黑翁으로 표기를 바꾸었다던가, ‘코카콜라’를 ‘可口可樂’으로 ‘웬시콜라’를 ‘百事可樂’으로 표기한 것 등은 외국어 표기의 백미로 보인다. 오늘날 새로이 들어오는 외국어는 국립 통신사인 中央社에서 표기를 통일하여 각 언론 기관에 전달하면 각 언론 기관에서는 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만에는 학교에서 교육되는 규범 문법이 없다. 이 점은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륙에서는 몇 년 전에 학교 규범 문법의 설정을 위한 회의가 소집된 적이 있으나 아직 그 결과는 보이지 않으며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대만에서는 이러한 회의조차도 아직 소집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의 國語 교육의 목표는 教育部가 발표한 國民中學國文課程標準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대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國語 교육을 통하여 윤리 관념, 민주적 기풍, 과학 정신, 애국 정신을 기르며, 中華文化를 발양케 한다.
2. 듣기와 말하기의 능력, 태도를 배양시키고, 언어와 문자의 조직 및 응용의 방법을 습득시킨 후 각종 문체의 寫作 기교 및 문법의 운용 방법을 습득시킨다.
3. 文言文을 이해시키고, 漢字를 쓰는 방법을 습득케 한다.
4. 자신이 발표한 언어와 문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태도와 思考 능력을 기른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國語 교육의 중점이 인문 정신의 훈련에 있음을 보게 된다.

(허 성도 : 서울大 教授 · 中國語學)